



제1부

# 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제 1장 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제 2장 북촌 살펴보기

# 제 1 장. 북촌 가꾸기의 새로운 시작

새 천년을 눈앞에 둔 1999년 후반기에 북촌 한옥마을을 지키고 가꾸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주변과 행정 영역에서 함께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북촌 가꾸기 요구와 서울시의 '도심부 관리계획' 수립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된 북촌 가꾸기는 2000년 10월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확정으로 구체화되어, 2001년부터 향후 4년간 총 8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북촌 한옥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규칙 제정, 한옥심사위원회 구성, 북촌 사업비 확보 및 현장사무소 개설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제기 본격 시행되어 12월 현재 총 109채의 한옥이 등록을 마쳤고, 이 가운데 67채가 한옥수선을 위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한옥등록제를 골간으로 시작되고 있는 북촌 가꾸기는 마을을 지키고 되살리는 일을 주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서울시가 새로운 도심부 정책에 따라 시작하는 역사지역 보전의 '모델사업'으로서의 의미 또한 크다.

200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시장개발연구회과 (주)아우드앤시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공동 수행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은 '북촌 가꾸기의 틀 만들기(제도보완 및 정책방향 제시)', '북촌 한옥 되살리기(한옥의 수선 및 활용방안 제시)', '살기좋은 북촌 만들기(환경정비계획 수립)' 등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북촌 가꾸기의 정책지침과 사업계획을 담고 있다.



항공사진 : 북촌(1962년)